

“The Pilgrim’ s Progress” written by John Bunyan(1628-1688)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해설 천로역정 - 김 홍만 지음

고린도전서(2:9-10) :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목표: 하나님과 연합된 선택된 자들에게는 세상과 영광, 행복과 즐거움이 아무 쓸모 없음을 보이는 것이었다.

순례의 여행을 시작하는 죄인

“이 세상의 황폐한 광야 지대를 두루 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니, 거기에는 굴이 있었다. 나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천로역정의 이 간결하면서도 위대한 첫머리.

천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영국의 청교도 작가이자 설교자였던 존 번연이 기독교 문학의 고전이 된, 기독교인의 일생을 그린 우화집이다. 이 책은 종교개혁이 강조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와 성경의 “만인 이용” (?) 을 설명한 기독교인의 생활에 관한 우화집이다.

존 번연의 생애

잉글랜드의 베드포드(Bedford)근처에 있는 엘스토우에서 땀장이의 맏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 받았다. 겨우 읽기, 쓰기만을 배운 그는 16 세 때에 크롬웰의 의회군수비대에 들어갔다. 1647 년 의회군이 해산되자 고향으로 돌아가, 결혼하여 네 자녀를 두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새롭게 하고 나쁜 습관을 버렸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강조하는 내용을 읽고서 회심하였다. 그리고 베드포드에서 평신도 설교자로서 사역을 시작했다. 낮에는 냄비와 팬을 수선하고, 밤과 주말에는 영혼을 구령했다. 그의 능력있는 설교로 인해 수많은 회심자들이 생겼고, 또 강한 대적자들도 나타났다. 그러던 중 찰스 2세가 복위하여 크롬웰이 통치하던 시기에 인정했던 종교의 자유를 취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1660 년 존 번연은 허가없이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1672 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가 투옥되었던 기간에는 그의 아내가 만든 구두끈을 팔아 번 돈과 그의 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만 가족들이 생활을 해야 했다. 그는 1665 년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다시 투옥되었다. 존 번연은 폐렴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1688 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설교를 그치지 않았다.

번연이 지은 60 여권의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은 천로역정인데. 감옥에 면회오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 쓰기 시작한 책으로 크리스찬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오래 동안 사랑 받아 왔다.

### 천로역정의 탄생배경(위기가 곧 기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때의 일입니다.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무려 12년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중 그의 사랑하는 아내 메리가 죽었습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거지로 살던 아내가 죽자 세 자녀는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고아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속에서도 그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그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때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 존 번연은 좁은 감옥안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는 “천로역정” 을 써내려 갔습니다.

존 번연이 옥중에 수감되었던 일은, 아마도 <천로 역정>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는 지도 모릅니다. 장차 망하게 될 죄악의 도성을 떠나 천성을 향하여 떠나는 한 순례자의 여로를 장엄한 서사시처럼 그려내고 있는 이 <천로 역정> 은 고뇌와 회심, 전도와 박해,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로 이어지는 번연 자신의 고달픈 생애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678년 출판된 이 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영어권의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으며,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신앙서적이 되었습니다. <천로 역정>은 1678년에 처음출판되었고, 출판 첫 해만 10만부 이상이 팔렸으며, 오늘 날까지 베스트 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천로역정>의 원제목은 우리말로 “순례자(Pilgrim)의 여로(Progress)”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895년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천로 역정>이라고 이름하여 이후 모든 번역본들이 이 제목을 취해 왔습니다.

### 1 장: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크리스찬이 죄를 깨닫고, 다가올 진노에서 피하고, 복음의 인도(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께로 향한다.(은혜의 과정)

- 1) 그 남자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다.
- 2) 그 남자의 얼굴은 자신의 집 방향으로 부터 돌아서 있었다.
- 3) 그의 손에는 책 하나가 들려 있었다. - 성경책
- 4) 그의 등 뒤에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 5) 그는 책을 열어서 읽고는 울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 2 장: 그 남자의 가족들;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멸망에 대한 심판의 위험을 깨닫지 못했다. 성령이 눈과 마음을 열어 주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한다.

### 3 장: 더욱 깊어 지는 영적 각성;

스스로가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함(성령의 역사)

- 1) 자신의 영적 무능을 철저히 깨닫게 하고 인정케 함(영적으로 낮아 지는 단계)- 십자가의 도가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이며, 구원임을 받아 들임.
- 2)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됨.-예수 그리스도를 찾음.

### 4 장: 전도자(1);

좁은 문을 가리키며 그 곳으로 가라고 지시함(목회자를 암시).

- 1) “다가 올 진노를 피하라” 고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그에게 전도자가 줌.
- 2) 좁은 문으로 가라. 불빛(말씀의 불빛)을 따라 가라고 일러 주었다.

### 5 장: 가족으로 부터의 시험;

가족과 이웃의 만류(시험)를 뿌리치고 순례의 길을 떠났다. 이때 시험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말에 대하여 듣지 아니하고, 영원한 목표를 기억하며,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전서(2:9-10) :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6 장: 크리스찬의 순례 시작 - 고집쟁이는 동반 거부;

크리스찬: 1) 자신의 죄 된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 2)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포기함. 3) 영원한 것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

고집쟁이: 1) 이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 2) 자신의 제한된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무지와 편견으로 자신의 견해를 진리로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보지 않는다.)

7 장: 번덕쟁이; 일시적 믿음의 인물

- 1) 번덕쟁이는 천국을, 영생을 육신적이면서, 물질적인 관점에서 본다.
- 2) 천국을, 영생을 자기의 상상력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상상과 상반되는 일을 당하게 되면 종교적 행위를 멈춘다.
- 3)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모르는, 등뒤에 죄짐이 없다.
- 4) 순례의 길을 가게 될때, 치러야 할 희생이나 겪을 많은 환난에 대해서 모른다. 즉 자기 부정이나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모른다.
- 5) 절망의 수령을 만나면 쉽게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크리스찬을 비난하고 조롱한다.

8 장: 절망의 수령;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의심과 회의로 시험 당함을 의미.- 영적인 의무, 특별히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 할때- 과거의 죄 된 삶과 멀어지려는 노력을 하며, 천성을 향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을 갖고, 사역자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9 장: 도움;

의심과 회의와 절망에 빠져 있는 성도를 건져 내기 위해서, 궁핍히 여기는 심령과,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대해서 깊은 영적체험을 가지고 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은 구원하시는 계획과 방법과 수단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자다.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 10 장: 세상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복음의 신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자며,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종교를 논하는 자다. 인간의 의지와 도덕적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로서, 자기 부정과 십자가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믿는 자다(속이는 자). 육신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한다. 세상 지혜자의 시험은 다른 복음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죄에 대한 지식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인간의 죄와 죄성을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 11 장: 도덕 마을;

율법주의자가 살고 있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두려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에 대한 관심없이 살아 가는 자들이다. 그들의 삶은 자신의 편리에 따라 사는 삶이며, 죄에 대한 지식없이, 구원에 대한 관심없이, 단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율법주의자: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다. 도덕마을은 인간적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외형적인 종교적행위를 통하여 죄의 부담을 떨쳐 버리면서, 구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일부러 잊어버린 채, 쉽고 편하게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유혹자다.

우리에게 시험은 3 가지로 온다. 세상으로 부터의 시험, 사탄과 마귀로 부터의 시험, 우리의 육신으로 부터의 시험이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손에 있는 성경책을 사용하여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시험을 피하고 이겨야 한다.

## 12 장: 전도자(2);

좁은 문으로 가라고 지시했던 사람으로, 크리스찬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따라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은혜롭게 간섭하셨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충고를 들은 것에 대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 같은 유혹을 당할 때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전도자는 크리스찬이 죄를 철저히 깨닫도록 인도하였으며, 죄의 원인까지도 알게 하였다. 전도자는 크리스찬의 죄를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용서의 소망을 주었다. 즉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니,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였다. 결국 연속되는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게 된다.

### 13 장: 좁은 문;

우리의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죄 된 습관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들어 갈 수 없다. 반드시 자기를 부정할 때 통과 할 수 있다.

좁은 길 - 믿음의 조상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 진 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이다.

넓은 문 - 자신의 육신적 성향과 죄 된 삶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구원의 간절함이 없어도 쉽게 통과할 수 있으며, 경건치 않은 친구들을 버리지 않아도 되며, 세상 위상을 지니고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넓은 문을 통과한 자들은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으며 방종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었다고 부르짖는다. 결국은 멸망이다.

눅 (13:24) 좁은 문으로 들어 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크리스찬이 들어가기로 힘쓰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다.

고린도전서(2:9-10) :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목표: 하나님과 연합된 선택된 자들에게는 세상과 영광, 행복과 즐거움이 아무 쓸모 없음을 보이는 것이었다.

14 장: 문지기;

호의 또는 선의이며, 회개하는 죄인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지 않고, 좁은 문을 찾지않는 이유는, 그들이 당할 멸망과 위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한 멸망의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즉 그들은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다.

생명의 길; 좁고 곧바른 길, 즉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걸어 가는 거룩한 길을 의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영적인 주의를 기울리 하거나 자기 주장과 자만심으로 빠져 있으면 멸망의 길로 쉽게 빠져 들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좁고 험악한 길을 가는 자는 회개와 자기 부정, 인내로 죄를 죽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일을 계속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결국은 영생이다.

마태복음(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악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멸망의 길;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한 쪽으로 치우쳐도 문제가 없는 구부러져 있으며 폭이 넓은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정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당히 구부러트려 완곡하게 적용한다. 또한 그 길은 넓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그대로 따라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한다. 하지만 넓은 길의 결국은 멸망이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분명한 이해와 체험이 있기까지는 죄집이 크리스찬에게 지어져 있다.

## 15 장: 바알세불 성;

바알세불은 좁은 문으로 들어 가려는 자들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마귀성의 주인. 그들의 유혹은 1.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2.당신은 선택되지 않았다.(당신의 이름은 생명록에 없다) 3.구원의 길을 인간 자신의 힘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든다.

구원의 은총의 시작도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터 시작된것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해야만 갈 수 있다.

## 7 가지 가르침

### 16 장: 해석자의 집;(성령)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의 놀라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우리의 자연적 어두움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거룩함과 구속함을 이루신다. 천국과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에 허락된 자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누리지 못한다.

### 17 장: 참 목자상;

1.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며, 주께서 맡기신 영혼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며 돌보아야 하기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2.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 그리고 천성에 관련된 것들을 우선시한다.
3.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며, 자신이 먼저 성경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수고를 해야 한다.
4. 진리의 법칙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두려움없이 담대히 전해야 한다.
5. 복음 전도를 목회의 중심과 핵심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자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6. 주를 섬기는 일을 사랑하고 끝까지 목회자의 직무를 다한다.
7. 회심이후 성장하기 까지 그 영혼에 대해서 모든 수고와 애를 쓴다.

참된 목회자의 특징을 통해 거짓선지자와 교사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18 장: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율법이 죄를 책망하고 질책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비로소 자신의 죄들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심령속에 감추어 있던 죄성과 부패성을 드러나게 하였다. 율법은 우리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율법이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기는 하지만, 죄를 뿌리 뽑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무능을 더욱 드러나게 하여서 인간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하여 자신은 구원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게 하여, 결국 그리스도를 찾아가도록 만든다. 복음이 영혼에게 이르러서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복음으로 영혼은 깨끗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실 수 있게 되며, 그 영혼은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되며, 결국 죄의 활동들을 가라앉힌다.

## 19 장: 정욕과 인내;

정욕은 세상의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 영적인 소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장차 올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갖어도 만족이 없으며, 더 갖기 위해서 더욱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다.

인내는 천국 백성을 상징하며, 이 세상에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므로 차분하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의지를 다해 기다리며,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하늘 나라에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절제 함으로써, 너무 쉽게 세상의 욕심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천국의 백성은 소유의 넉넉하고 부족함에 따라서 행복의 여부를 결정짓지 않는다. 가르침- 이 땅의 일시적인 것과 장차 영원한 것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요구 하는 것이다.

## 20 장: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성도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속에 열정이 뜨겁게 일어난다. 그런데 마귀는 거듭난 영혼에게 있는 불을 끄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한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게으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피곤하게 여기도록 함으로써 은혜의 불을 끄려고 하며, 거짓 교사들을 사용하여 거짓 가르침과 이단을 만들려고 하고, 거짓 가르침을 조장하여 성도를 미혹한다.(벧후 2:1-3)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은혜의 기름을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어 주시기 때문에 거듭난 심령속에 일어난 불길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탈 수 있다.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애쓰며, 열성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겸손한 자에게는, 보존의 은혜의 교리는 위로와 확신을 준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존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만들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될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

유다서(1:24)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 21 장: 용감한 사나이-제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후에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궁전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궁전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뛰어 들어 가는 자다. 천국에 들어가려는 거룩한 열망은 우리로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며, 믿음의 싸움은 그에게 있는 은혜가 참된 구원의 은혜임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증명한다. 참된 제자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의 죄된 육신적 소욕과 싸우되 특별히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 이와같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구원의 은혜의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군중 또는 무리 - 구원의 은혜가 귀하고 중함을 알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소망 하지만 그것을 얻기위해 죄악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리에 해당된다. 십자가가 두려워서 따라오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와 관계없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하지만 번두리에 자리를 잡고 관망하거나 혹은 은혜의 구경꾼의 모습으로 살아 가기도 한다.

고린도전서(2:9-10) :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목표: 하나님과 연합된 선택된 자들에게는 세상과 영광, 행복과 즐거움이 아무 쓸모 없음을 보이는 것이었다.

22 장: 철창에 갇혀 있는 남자 - 타락;

타락(배교도 포함)에 대한 경고는 성도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주어서 지속적으로 죄와 세상과 싸우도록 만드는 은혜의 수단이며, 우리로 겸손하게 만들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도록 만든다.

타락은 일시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타락의 교리는 위선자에 대한 교리로서, 참된 은혜가 없는 상태이지만 은혜 있는 모습을 하였다가 결국 타락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교리며 참된 성도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믿음, 혹은 일시적 믿음을 가진 자가 타락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르침이다. 타락의 교리는 참 성도에게 주의와 경고를 주는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

타락의 수렁으로 빠지는 과정은 첫째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전혀 의심치 않고 스스로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신앙 생활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만족한다.

따라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않았고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포기하므로,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면 세상의 정욕에 얽매이게 되어,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둘째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 성령의 책망과 질책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양심의 울리는 소리가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므로 죄에 대한 슬픔도 죄에 대한 고백도 없었으며 결국 성령을 근심시키고 더욱 나아가서 성령이 떠나가셨다. 셋째로 죄로 강박해진 영혼은 더욱 강박해져, 예수님의 인격을 경멸하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결국 성령을 욕되게 하고 훼방하는 것에 이르게 되어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거부함으로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타락에 대한 가르침은 참 성도에게 순례의 길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항상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가도록 하며, 더욱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 있게 하고, 경계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주님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서도록 이끈다.

### 23 장: 마지막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은 부활의 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경건한 자는 그 믿음의 진실함이 증거되어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참된 성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의 대상자는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은 자들이다. 둘째는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로서, 이 들은 복음을 들었으나 순종치 아니한 자들로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죄사유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지 않은 자들이다. 셋째는 경건치 않은 자들로서, 교회속에서 믿음이 있는 척 하였고 여러가지 종교적 행위들을 하였으나 위선으로 행한 자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심판대에서 드러나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심판의 가르침: 성도에게 경고로서 깨어 있으라는 것. 언제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만들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경건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게 한다.

### 24 장: 십자가의 체험;

십자가가 있는 언덕길의 양쪽의 높은 담인 “구원”은 순례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순례자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구원을 향해서만 가도록 높이 둘러져 있었고 또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 즉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순례의 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이 만들어졌다.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가 있는 언덕을 오르면서 무척 힘들었지만 중단하지 않고 계속올라가 십자가에 이르는 순간 그의 어깨로 부터 짐이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더니 조금 떨어진 무덤속으로 굴러 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장면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안에서 모두 매장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가 깨끗이 씻겼음을 체험하게 되며, 씻으려해도 씻을 수 없었던 죄가 십자가를 통해 씻기어지는 체험을 하니 너무 기뻐서 한 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이다.

십자가의 죄 용서함을 체험한 크리스찬에게 세 명의 천사가 구원의 은혜를 줬다.

첫번째 천사 -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말해 주었다. 용서함 받은 것을 확신시켜 줬다.

두번째 천사 - 크리스찬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 입혀 주었다. 과거의 누더기 옷을 입고서는 습관적인 죄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하려 해도 할 수 없었다. 이제 새옷을 입고 의롭고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빛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세번째 천사 -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를 달아 주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혼이 갱신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언약속에 들어 왔음을 의미한다. 두루마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함을 생각 하게 한다. 두루마리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계속가도록 격려하며 근신하도록 만드는 은혜의 수단이다.

갈라디아서(2:20)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 25 장: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인물들:

잠자는 세 사람의 공통점은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시온산으로 가야 할 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들은 교회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사람 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게으름과 죄의 습관에 매여 있으며, 세상에 의해서 심령이 완전히 점령당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곳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은 죽음의 위험과 심판의 위험, 혹은 지옥의 무서운 고통에 대해서 깨닫기 전까지는 잠에서 일어 나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들은 족쇄로 게으름과 죄에 이중으로 묶인 셈이다.

미련쟁이 - 자신의 영적 미련함으로 인하여 멸망의 위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눈이 감긴 자로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이다.

게으름쟁이 -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지연시키고 뒤로 미루는 자. 삶의 변화에 대한 초청을 연기하는 자. 언제 생명이 다해서 지옥으로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거드름쟁이 - 무지의 죄에 대해 심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은혜의 열매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또한 자신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거룩하기에 힘쓰고 죄와 싸우는 성화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자. 잘못된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자이다.

## 26 장: 형식 주의자와 위선자: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오로지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인물들로서, 이들은 종교의 외적인 것을 준수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자는 자신을 속이고 있지만, 위선자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까지 속이고 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치러야 할 희생을 싫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죄의 질책,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철저히 낮아짐, 회개,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추장스러워하고 불편해 하며,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교만한 자들이다. 이들은 회개와 믿음이 없으므로 결국 천국에 들어 갈 수 없다.

영적 체험들은 천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듯이 필요한 것들이다. 오늘날 교회집회나 프로그램에서 간증, 혹은 시청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고조시키고 흥분시켜서 어떤 결심들을 유도한다. 이러한 경우 죄의 깊은 질책이나 성령의 역사로 인한 낮아 짐, 용서를 얻기위한 갈망등과 같은 성령께서 죄인의 영혼위에 일 하시는 것을 생략하고, 즉각적으로 얻은 결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언하나, 그 당시의 감정이 시들면, 더 이상 결심이 지속 되지 않아 결국 이들 가운데 일부만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계속보이기 위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외적인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열심히 행했던 자들로, 그 동기는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듣고 자신을 드러 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경건의 외적 모양은 있을 수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관습속에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장소의 교회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크리스찬은 십자가 체험을 하고 나서 받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을 입고 있지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스스로의 의의 옷” 을 입고 있다.

또한 크리스찬은 성령의 인침과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그러한 표징을 보지 못한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교회에 넘치면,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고린도전서(2:9-10) :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목표: 하나님과 연합된 선택된 자들에게는 세상과 영광, 행복과 즐거움이 아무 쓸모 없음을 보이는 것이었다.

### 27 장: 고난의 언덕;

“고난의 언덕”은 성도에게 특별한 자기 부정이 요구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난의 언덕을 통하여 순례자가 은혜를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지, 아니면 은혜없이 가는 지의 여부가 드러난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회개의 좁은 문을 피하였고, 믿음의 십자가를 피하였으며, 쉬운 지름길을 택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고난의 언덕을 택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래서 두사람은 쉬운 길인 오른 쪽과 왼쪽으로 난 위험과 멸망의 길을 택하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가운데 있지 않았다.

고난의 언덕과 고난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도록 만든다. 성도로 하여금 자기를 부정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고난의 언덕과 고난의 길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임시적인 이익을 희생하도록 만들며,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안락과 편안함을 버릴 수 있도록 훈련하며, 우리의 죄된 습관을 고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진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며, 그러한 두려움은 의심과 회의에 빠지도록 한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고난을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고난을 당할 때 의지할 주가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 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다.

고난의 순례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은혜의 수단중 하나는 주일이다. 즉 찬양과 감사는 두려움과 의심을 마음속에서 물리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고난속에서 피곤할 때 찬양과 감사를 드림으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다.

고난의 언덕은 천성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데, 이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수많은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찬송하면서

즐거움으로 걸어가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결국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결말을 맛보게 될 것이다.

### 28 장: 정자에서 잠에 빠짐;

크리스찬이 정자에서 잠에 깊이 빠짐으로 순례의 여정이 지연되고, 더욱이 두루마리를 떨어뜨려 잃어버리는 장면은 우리에게 영적 게으름에 대해 교훈한다. 특별히 고난의 언덕은 자기를 부정하는 의무를 다하는 곳인데, 그는 육신의 편안함에 빠져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영적 게으름은 고난 이후 안정이 찾아 왔을 때 빠지기 쉽다. 잠에서 깨어난 크리스찬은 산꼭대기까지 달려갔고, 거기서 겁쟁이와 의심을 만나, 그들로 부터 고난의 언덕을 지나게 되면 더욱 위험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과 걱정애 빠져 두려움을 이기기위해 두루마리를 읽으려고 했을 때, 두루마리가 없어 졌음을 깨달았다. 즉 영적 게으름의 결과로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하였다. 즉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신을 잃어버린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자신이 왔던 길을 철저히 살피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 주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특정한 죄들을 참회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결과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두루마리를 잃어 버리게끔 허락하신 뜻을 발견하게 된다. 비록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으나 다시 찾게 함으로써 두루마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도록 만드시므로, 이전보다 더욱 부지런하고 근면하도록 만드셨다.

### 29 장: 겁쟁이와 의심;

겁쟁이와 의심은 순례의 길에서 어려움과 위험한 것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을 나타낸다. 이들의 특징들은 첫째로 어려움과 위험에 대해서 멀리서 바라보고 짐작한 것을 갖고 크게 과장한다. 두려워하여 어려움을 크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자리잡게 되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셋째로 불평을 퍼트려서 다른사람으로 두려움을 갖게 한다. 크리스찬은 겁쟁이와 의심의 말로 인하여 잠시 두려워하였으나, 위험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않고 계속 나아가며 죽더라도 주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였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믿음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뛰어 넘는 것이다.

## 아름다운 궁전에서의 가르침

### 30 장: 아름다운 궁전;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충성스럽게 외쳐지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행해지는 곳이다. 공적인 신앙고백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시키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특권을 즐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반드시 교회에 속해서 자신의 공적인 고백이 증거되어야 하며, 교회에서 양육받아 봉사해야 하며, 한편으로 안도감과 휴식을 누려야 한다.

에베소서(4: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신앙고백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

에베소서(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지어다.

### 31 장: 분별;

분별은 교회 사역자로서 교회 회원의 성경적 자질 즉 성경의 지식과 영적 체험의 유무를 살피도록 지정된 자다. 분별은 1) 어디서 왔는 지? - 크리스찬 자신이 어떠한 자인 것을 아는 지의 여부를 파악한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낄 때 교회(아름다운 궁전)가 필요하게 된다. 2) 어디로 가는지? - 자신의 목적지에 대한 지식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한다. 3) 어떻게 해서 순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 가? 즉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달았으며,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당신의 심령에서 시작되었는 가에 대한 질문이다. 중생과 회심의 역사의 증거들을 심령속에서 살피기 위한 것이다. 4) 순례의 길에서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는 지? 크리스찬이 된 이후 어떠한 체험들을 하였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까? 혹은 유혹하는 자가 미혹할 때 유혹을 극복 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은밀한 기도를 하십니까? 등이다. 5) 이름은 무엇인지? - 이름을 마지막에 묻는 것은 사람에 대한 세상적 판단들이 교회에서 허용 될 수 없으며,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안에서 동등함을 말하고자 하였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복음 사역자들에게 있는 기쁨과 감격은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세례후보자를 성경적으로 철저히 살피지 않는다면 교회에 세상적 인자들, 경건치 못한 자들, 악한 자들, 위선자들이 넘치게 될 것이며, 세상에 대해 진리의 빛을 더 이상 비추지 못하며 오히려 세상으로 부터 조롱받을 것이다.

### 32 장: 경건, 신중, 자비;

경건, 신중, 자비는 교회의 사역자들로 교회에 받아들여진 크리스찬이 주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지의 여부를 살피는 자들이다. 교회는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시행하여 교회의 거룩과 성결이 유지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물론 성도들은 이러한 교회의 사역자들로 인하여 유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경건의 질문: 1) 순례의 동기 - 크리스찬이 죄에 대하여 책망과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려워하여 순례의 길을 출발하였다. 즉 그리스도에게로 인도 되어지고 있다. 2) 좁은 길을 택한 이유 -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전도자를 만나 이곳으로 인도 받았다고 대답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다.

3) 해석자의 집에 관한 것. -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경의 교리를 배우며, 십자가의 체험을 통한 경건의 증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로의 인도 받음.

신중의 질문: 1) 과거에 대한 생각은 크리스찬은 과거의 죄된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싫증을 느끼며 회개했다. 회개의 열매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다. 죄와 싸우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또한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완전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2)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의 소욕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 지? a.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가 살아날 때 십자가를 생각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b. 의의 걸 옷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로 의를 사랑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 c. 언약의 두루마리를 바라봄으로 주안에서 발견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두루마리는 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 d. 천성을 사모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비의 질문: 1) 가정을 가지고 있는 지? - 가정 안에서 복음이 번성되지 않는다면, 신앙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식구들의 구원을 갈망하였는 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자라면 줄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함을 느끼고, 그들을 건지려는 간절함과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2) 식구들과 왜 함께 오지 않았는 지? - 혹시 크리스찬의 절제되지 못한 삶이 설득을 약화시켜 식구들이 따라오지 않았는 지? 식구들이 죄악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지? 육신적인 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진정한 이유다.

고린도전서(2:14)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나니라.

주의 성찬 - 주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귀중한 특권이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고난, 죽음에 대한 영원한 기억을 다시 기억하게 해서 우리자신을 그리스도에게 항복시키고, 봉사하게 하며, 거룩한 열망들을 다시 일으키고, 겸손하게 하며, 자기를 부정시키면서 순종하게 한다.

### 33 장: 도서관;

도서관 - 교회의 기능으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서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부지런히 참석해서 말씀 깨닫기를 갈망하는 기도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도서관(교회)의 기능:

1. 성경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 그리고 신성에 대한 것을 성경책을 통해 배우므로, 주를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로 충분히 믿도록 만들며,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맛보도록 만든다.
2. 믿음의 사역자, 영웅들이 행한 놀랄만한 일들과 승리를 얻었던 것의 비밀이, 그들의 믿음에 있었음을 알게 한다.
3.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 알게 한다. 죄를 회개하고 주를 찾는 자에게 기꺼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므로, 깨어나고 있는 죄인들에게 한 없는 위로를 주는 메시지이다.
4. 성경이 역사서와 예언서로 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들이 역사속에서 어떻게 일어 났는 가를 설명하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의 믿음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예언서의 예언들은 순례자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될 뿐아니라 소망을 갖게 한다. 예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그리스도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건지시는 것을 확신한다.

성경의 지식이 온전히 구비 되어야 믿음이 온전해 질 수 있다.

고린도전서(2:9-10) :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목표: 하나님과 연합된 선택된 자들에게는 세상과 영광, 행복과 즐거움이 아무 쓸모 없음을 보이는 것이었다.

34 장: 무기 참고;

에베소서(6:13-18)-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칼 -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로서 죄에 빠트리려는 마귀의 유혹들을 절단하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아래 있는 영혼을 건져 내기 위해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

방패 - 마귀의 유혹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방패가 필수적이다. 마귀의 불화살은 육신의 정욕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막아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부른다.

투구 - 구원의 소망을 의미한다.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 잡을 때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투구가 필요하다. 마귀가 성도들에게 낙심, 걱정, 불안으로 머리를 공격했을 때, 성도가 고난과 환난가운데 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며, 인간적 생각으로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 구원의 투구, 즉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흉배 - 의의 흉배로 마귀의 고소하는 공격에 대비하는 것으로, 자신이 지은 악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써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게 한다.

기도 - 영적 전투에서 모든 기도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승리를 할 수 있다.

신 - 영원히 닳지 않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복음을 외쳐야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험하고 가시밭 길과도 같아서, 군인들이

신은 신발과 같은 튼튼한 신발을 신고, 믿음으로 준비해 복음을 외쳐야 한다. 복음전도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므로 매우 강력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은혜를 수단으로 해야 한다.

### 35 장: 기쁨의 산;

기쁨의 산은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며,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천국을 보다 분명하게 바라보는 영적상태를 말 하는 것이다.

딤후(4:8)-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크리스찬에게 기쁨의 산이 아직 멀리 보이는 이유도 그가 아직 영적인 실체를 다 깨닫지 못하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날씨가 맑지않으면 보이지 않는 다고 말한 이유는, 의심과 세상적인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천성의 즐거운 삶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알려 주기 위해서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의 영적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도록 도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어야 한다.

성도의 영적 단계, 혹은 수준을 3 단계로 말하고 있다.

- 1 단계-아이들의 영적 수준으로, 죄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
- 2 단계 - 청년의 영적 수준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꾀계를 물리칠 수 있는 단계.
- 3 단계 - 아비의 영적수준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을 익혀 잘 깨달아 순종하는 단계.

크리스찬은 멀리 떨어져 있는 기쁨의 산을 바라보면서 더욱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려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감동되어진 소망은 순례의 길에서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 36 장: 겸손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는 비탈길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것은 죄와 싸우며 자신에게 있는 믿음의 원리를 삶 가운데로 나타나게 하는 일로써, 크리스찬에게는 위태롭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분별, 경건, 신중, 자비의 훈계와 위로를 생각하며, 이것이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으며,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잃어 버리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 하시는 자들을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을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서 먼저 배우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할때 넘어 지는것을 막으신다.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세상으로 나아 가는 길의 처음에 있었다. 겸손이 크리스찬에게는 필수적이며, 겸손의 심령속에 있는 믿음의 원리가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게 해야 한다.

고전(10:12)-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 37 장: 마귀 아볼루온;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 아볼루온과 만나 전투를 한다.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파괴자란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즉 파멸 이라는 의미로 요한계시록 9장 11 절의 말씀에서 인용한 것으로 마귀를 의미한다. 마귀가 하는 일은 인생을 망가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 하늘을 향해 가는 길을 가능한 한 힘들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없애는 것이다. 마귀의 모습은 몸에는 물고기 비늘이 덮혀 있었고, 용의 날개 같은 것이 등에 솟아 있었고,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고, 배에서는 화염이 솟구쳤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즉 물고기 비늘은 자신의 교만을, 용과 같은 모습은 두렵게 하는 것을, 곰은 잔인함을, 배에서 불길이 나오는 것은 마귀의 파괴적인 성질을, 그리고 입이 사자 입으로 묘사된 것은 삼키려는 것을 나타낸다. 마귀의 흉칙한 모습은 크리스찬 의 마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매우 산란하게 만들어, 성도에게 있는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없애려 한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성도는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국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져 넘어 지게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의 공세에 반드시 정면으로 대적해야 한다. 뒤로 물러서게 되면 마귀의 쏘는 화살에 맞아 쓰러지게 되어 있다.

히브리서(10:38-39)-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마귀가 크리스찬을 공격하는 방법과 크리스찬의 대응 방법:

- 1) 마귀는 성도들을 다시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 사탄은 이미 이 세상의 신으로서, 믿지않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다. 그러나 성도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더 이상 사탄과 마귀의 종이 아니다.
- 2) 마귀는 거짓말로 약속을 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즉 자기에게 돌아오면 잘 해주겠다는 약속(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 처럼 속이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주겠다고 한 마귀의 약속)
- 3) 순례의 길 앞에 닥아올 어려움을 다시 생각하도록 유혹한다. 육신의 편안함 보다 크리스찬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다.

- 4) 과거의 실수와 약점을 들추어 내면서 순례의 길에서 불충실을 통해 크리스찬의 죄들을 참소하면서 부끄럽게 하고, 죄의식 속에서 사로 잡히게 한다. 믿음의 근거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안에 있는 용서를 확고히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 5) 마귀는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강박한 마음을 갖게 하는 유혹을 하며, 하나님을 향해 불경스러운 생각, 악한 제안, 더러운 생각,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구원, 혹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의심이 들게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부주의 하게 만들며,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도록 만든다.  
결국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루온과의 전투를 통해 크리스찬은 더욱 겸손해 졌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 38 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반듯이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골짜기는 매우 외로운 장소이다. 크리스찬은 이곳에서 아볼루온과 싸운 것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성도에게 있어서 질병, 가난, 친구의 죽음, 실망, 계획에 대한 좌절과 실패, 악한 자들의 변영으로 인한 혼돈들이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러한 외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신 것 같고, 모든 위로가 사라졌으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시들어지고 심령은 두려움으로 가득차 있으며,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외적인 어려움과 내면의 어두움이 함께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회의를 품게 되어, 영적인 뜨거움은 점점 식고, 교회 생활과 봉사들은 점점 형식적이 된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성도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더욱 주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크리스찬은 오직 이 길만이 천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시험에서 이긴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영향을 받고 오류를 받아들인다. 잘못된 가르침은 스스로 무지에 빠지게 해서, 구원에 바른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고, 아무 것도 모르지만, 아는 것으로 착각하게 해서 멸망하게 만든다. 또한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고 육신의 정욕(불의)가운데 행하다가 멸망한다.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지식과 교리는 필수적이며, 교회사를 통해 어떠한 오류와 이단들이 있었는가를 파악하고 오류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결코 망하지 않으며, 응답이 지연되는 상황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며,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뜻을 밝혀 알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시편(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누구나 다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먼저 고난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같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고난을 이겨 내는 도전과 용기를 얻게 되며, 더욱이 먼저 고난받은 성도들로 부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주실 때, 먼저 그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 심령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마침내 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빌립보서(4:6,7)-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의 구원과 견지심이 있기까지 성도들은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 왜냐하면 반드시 어두움이 견히고 아침이 오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함으로써 크리스찬은 매우 겸손해진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죄와 싸우는 노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가를 인정하면서 비로써 감사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성실과의 동행 그리고 순교

39 장: 교황과 이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황” 과 “이교도” 의 묘사는 교황주의와 이교도에 의한 핍박을 설명한다. 교황과 이교도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모두 무지하고 미신적이며, 우상적이다. 이교도들의 신념과 관습들이, 로마가톨릭교회의 전통들이 형성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적인 의식들과 세속적 힘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이교도와 로마가톨릭교회의 공통점이다. (16 세기경 존 번연이 살던 시대를 위주로 서술했기 때문에 현재 입장과는 다르다.

40 장: 성실(충성 혹은 믿음이라고 번역됨);

성실과의 동행은 크리스찬의 다른 모습, 즉 한 몸,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조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사람들은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도록 유혹한다. 따라서 천성을 향해 가는 걸음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요소들을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디모데후서(4:22)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41 장: 첫 사람 아담;

첫 사람 아담은 우리 본성에 있는 사악한 정욕을 의미한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타락하고 부패한 속성이 인류에게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성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부패한 옛 사람의 성품은 성도들을 계속 유혹해 세상의 쾌락적인 삶과 교만, 명예, 부를 추구하게 만든다. 우리의 옛 성품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죄의 즐거움을 추구 하도록 만든다. 쾌락과 아름다운 집, 맛있는 음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등에 부패한 심령은 쉽게 유혹되어 죄의 즐거움 가운데 있다가 멸망하게 된다. 모세의 율법은 죄를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 그러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례의 길 처음에 율법을 통하여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 율법을 통하여 우리 생각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영혼을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의존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 영적 갱신을 가져 다 주며,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고 쓰러지지만 우리의 회개에 응서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한다.

로마서(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42 장: 불안과 수치;

“영광에 앞서서 겸손이며, 멸망에 앞서서 교만이다.”

겸손의 골짜기는 은혜를 받은 성도가 낮아지는 곳이며, 죄를 죽이는 겸손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여기서 성실은 불만을 만났다. 즉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심령을 부추기는 시험을 만난 것이다. 불만은 성실에게 더 이상 겸손의 골짜기를 가지 말고 돌아서서 멸망의 도시로 가서 세상 영광과 부와 쾌락을 다시 얻으라고 시험하였다. 또한 옛날 친구(본성) 들인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 영광” 으로 돌아 가라고 했다. 성실은 겸손함으로 유혹을 물리쳤고, 심령이 겸손했기 때문에 기꺼이 죄를 죽일 수 있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수치를 만났다. 수치는 믿음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을 비난하는 자다.

1. 사람이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는 것과 부드러운 양심을 소유하는 것이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들의 행동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를 통해 자신을 엄매이게 함으로 사회에서 동떨어 진 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치가 비난한 태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필요한 은혜의 모습들이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들이다.
2.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비천한 신분을 가졌고 무식한 자들이다. 고린도전서(1:27-28)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3. 거듭난 후의 그리스도인들의 부드러운 양심에 대해서 비난하였으나 이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4.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일은 수치스러운 태도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비난은 사람들로 교만하게 하여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알잡아 보게 하는 시험이다.
5. 이외에도 성경과 교회, 기도,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여, 믿음의 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수치와 같은 시험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세상과 인간적 판단으로 인한 비난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 43 장: 수다쟁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없이 성경에 대한 수많은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로,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하는 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다쟁이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착각한다. 이 수다쟁이의 특징이, 한 영혼의 심령속에 진정한 은혜의 여부가 있는 지에 대해서 살피는 것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교훈하고 있다.

수다쟁이는 심령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교회와 신앙고백을 버리고 떠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은혜와 증거인 자기 부정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수다쟁이는 말만 할 뿐이며, 그의 삶에서는 믿음의 실체가 없다. 따라서 수다쟁이는 “유사 그리스도인” 과 “명목적 그리스도인” 의 유형에 속한다. 은혜의 작용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죄의 깨달음과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작용의 효과이며,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죄와 싸우는 효과가 나타나 는 것이 은혜의 증거이다.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과 경건을 추구하고, 소망과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구원의 은혜가 심령위에 작용했다는 중요한 효과이다. 더욱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의 증거는 반드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대화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 44 장: 허영의 시장(1);

크리스찬과 성실이 전도자를 만났다. 전도자는 충성스러운 복음사역자로서, 크리스찬과 성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허영의 도시에서 마주 철 시험과 고난을 이길 준비를 시킨다. 전도자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 가에 대해 감사를 하게 하고, 더불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들 주위에 있는 위험들을 바라보도록 가르침으로 중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면류관을 얻기까지 인내하며 세상적인 것과 육신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허영의 도시의 주인은 바알세불이며, 좁은 문앞에 있는 성의 주인이다. 허영의 도시에 항상 열리고 있는 시장은 허영의 시장으로, 팔리는 물건들은 없는 것이 없었다. 또한 언제나 모든 종류의 악인들을 볼 수 있었다.

성도에게는 극복해야 할 적이 3개가 있다.

1. 마귀 아볼루온과의 싸움(참조: 37 장)
2. 우리속에 있는 부패한 옛 성품을 부추켜 쾌락적인 삶과 교만, 명예, 부를 추구하게 만드는 첫사람 아담의 육신적인 유혹(참조: 41 장)
3. 허영의 시장과 같은 세상의 유혹 -세상은 하나님과 성도를 미워하는 적대세력이다. 성도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허영의 도시와 시장을 통과 해야 한다.

성도의 순례의 길에서 세상적인 것의 유혹은 가장 강력하면서 동시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가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대한 목록으로서 이 세상의 염려, 부자가 되려는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는 정욕적인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

요한일서(2: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순례의 길에서 특별한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와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허영의 도시 사람들은 모두 바알세불과 아볼루온 군대 마귀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장래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땅의 모든 소유와 쾌락과 명예를 얻고자 애쓰고 있었다. 또 세상에 미혹되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였으며, 오히려 반대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도시의 주인인 바알세불(참조: 15 장)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허영의 시장을 세웠다. 허영의 시장의 물건들은

1. 집, 땅, 무역, 장소, 지위, 나라, 아내, 남편, 아이들 - 세상에서 살면서 합법적인 것들인데,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순례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 자녀로 만족케 하거나 아내와 남편을 우상이 되도록 만든다.
2. 마술, 사기, 도박, 오락, 어리석음 - 헛된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들어 서서히 영혼을 파멸로 몰아간다. 이러한 상품의 주목적은 사람들로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혼동된 마음의 상태로 만들기 위함이다.
3. 도둑,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등 불법적 행위면서 죄 된 것들이다. -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물품들을 사고 팔고 있다.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구원의 은총의 시작도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갈 수 있다(참조: 15 장)

믿음의 길은 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가는 길이다.

만약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열심을 다 한다면 그것의 열매는 허망함과 실망으로 돌아 올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탄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가지고,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가장 주된 즐거움으로 삼아야 하며, 합법적인 물건도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사용하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고린도전서(2:9-10) :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목표: 하나님과 연합된 선택된 자들에게는 세상과 영광, 행복과 즐거움이 아무 쓸모 없음을 보이는 것이었다.

45 장: 허영의 시장(2);

허영의 시장에서 두 순례자의 입은 옷과 언어와 거동이 시장에 큰 소동을 일으켜 크리스찬과 성실이 감옥에 투옥되고, 온갖 박해를 받는 장면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자 할때, 당하는 고난을 묘사한다.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은 그 나라나 혹은 고장에 복음이 들어 갈때 발생한다.

크리스찬과 성실이 허영의 시장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1. 크리스찬과 성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 즉 세상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2. 크리스찬과 성실의 언어는 은혜의 말을 사용함으로 진실이었는데, 허영의 시장 사람들의 언어는 마음의 악함을 그대로 표현되어 있었다.
3. 크리스찬과 성실은 시장 사람들이 거래하는 물건을 쳐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로 부터 핍박을 받았다. 두 순례자는 세상적인 동기, 목적, 이상으로 부터 완전히 분리 되어 있었다.

분명한 신앙고백과 고백에 일치되는 행위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다. 이것은 오늘 날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모습이다. 회개하고 주께서 구별하신 것을 지키려고 애써야 하며, 그것을 위해 핍박도 받아야 한다.

46 장: 순교;

두 순례자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있던 시민들 중에서 크리스찬과 성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시장에 혼란과 분열이 일어 났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방법(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으로 성실은 순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전까지 지옥의 권세나 능력으로 성도들을 잘라 내지 못함을 증거하게 하셨다. 성실이 흘린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고, 순례의 길에 나서게 하였으며, 생명을 보전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까지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소망과의 동행

### 47 장: 두 마음;

허영의 도시의 감옥에서 탈출한 크리스찬은 계속 순례의 길을 나아가다가 소망을 만나 형제의 언약을 맺고, 순례의 길을 함께 가게 되었다.

두 순례자는 달변의 도시로 부터 천성의 도시로 가고 있던 두 마음을 만났다. 두 마음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자신의 이기적인 것과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종교를 수단으로 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을 취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물질적이익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점잖은 언어 생활을 통해 신사적으로 보일려는 이유는 자신의 내적인 감정과 욕구와 이기적인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이다. 물론 두 마음같은 자들은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으며, 봉사도 하지만 자신의 중요성과 사람들로 부터 영광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두 마음의 친척들은 달변의 도시에 살고 있으며, 모든 거짓 고백자들의 특징을 나타내며 신앙고백과 행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자 들이다.

두 마음의 친척들은 변절, 기회주의자. 달변, 구변, 두 얼굴, 무신경, 두 혀를 가진 자들이다. 이들의 종교적 신념은 시대적인 사조와 흐름을 받아들임으로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의견들을 수용하므로, 세상에서 우세한 의견들이 성경적인 것을 무너 뜨리고 그것이 오류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또한 세상적인 번영과 종교가 연결되어 있으며, 종교가 세상으로 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종교를 추구한다. 두 마음과 친척들에게는 종교는 전적으로 외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그들은 항상 현실을 빨리 판단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행동하는 기회주의자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자들이며, 어려움과 사람들로 부터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들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서 이 땅의 일시적이면서 임시적인 것들은 모두 이차적으로 두고, 자기를 부정하는 의무를 다 하기 때문에 외적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른다.

#### 48 장: 두 마음의 친구들;

이 들은 모두 세상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자신들이 설정하여 놓은 기준에 맞추어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즉 세상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 주의적신앙으로 믿음, 거룩, 정직, 경건,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심령에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순례자라고 믿고 있다.

세상 사랑 - 세상을 꼭 붙잡고 있는 자로서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반대되는 일들을 과감히 행하는 자. 축복의 종교만이 진정한 것이다.

돈 사랑 -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 고난을 피하고 황금알을 낳는 종교를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인본주의 목사론과 축복론 강조.

수전노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꼭 붙잡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보더라도 구제하지 않는 자. 크리스찬은 자신의 신념에 너무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함.

두 마음 -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과 죽음까지 버리는 데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자신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말하였다.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세상적 이익을 위해 신앙고백과 믿음의 형제들을 이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욕심들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고백을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러한 탐욕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청결한 양심과 믿음을 갖도록 하고 죄의 욕심을 죽여야 할 것이다.

#### 49 장: 데마와 은광;

크리스찬과 소망은 안락이라는 평원에 도착하였다. 평원은 산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힘들지 않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순례의 여정에서 고난과 어려움 다음에 쉬운 평원을 주심으로 지친 영혼에게 영적 생동감과 위로(안식과 즐거움)를 주신다. 그러나 쉬운길로 계속가게 되면 영적 진보가 없을 뿐 아니라, 조그만한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실망하고, 순례의 길을 부담스러워 한다. 순례의 길의 대부분은 고난의 길이며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은 높은 영적능력과 거룩함과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고난의 길가운데 적당한 간격으로 평원을 두어 수고하고 피곤한 성도가 안식과 즐거움을 얻게 하고, 안식은 안주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짧게 끝나고 만다. 따라서 쉽고 편안한 평원이 곧 끝나는 것 자체가 은혜이다.

두 순례자는 데마로부터 “부정한 이득”이라는 낮은 언덕의 은광으로 가는 길의 유혹을 받았다. 첫째로 쉽게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언덕에 있는 길을 따라 은광으로

가게 되면 결국 죽음, 혹은 큰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기 마련이다.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은 믿음의 길을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를 말하며, 큰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은 비록 잘못된 행위를 회개함으로써 용서함을 받지만 죄에 대한 결과로서 기쁨과 생동감이 없으며,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세상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유혹이 매우 끈질김을 의미하며, 신앙고백을 내던져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교회에 있고, 멋진 신사처럼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세상으로 가게 하는 자들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둘째로 은광의 위험성은 부정하지 않았지만 조심하면 괜찮고, 위험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며, 간교한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은광으로 달려 가도록 한다. 은광을 향하여 가는 것 자체가 재물을 얻는 것에 큰 관심과 마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부주의 하게 만든다. 데마의 “조심하면 괜찮다고” 하는 유혹은 사단의 전형적인 유혹의 방법이다.

데마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유혹하는 것에는 실패하였지만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은 데마의 유혹에 넘어가 은광으로 달려갔고, 그들은 모두 순례의 길에서 사라졌다. 소망은 자신이 유혹에 끌리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였다.

#### 50 장: 생명수의 강;

다윗왕은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렀고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부른 강은 “구원의 축복”을 나타낸다. 강물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 부터 흘러 내렸는데,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구속의 사역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은혜를 성도 개인에게 임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다.

교회는 생명의 강의 좌우에 백합화가 만발한 푸른 초장으로 묘사되었고, 생명의 강물은 쉬지않고 계속흐르고 있으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곳으로, 교회의 영적생동감과 풍성함이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에 달려있다.

#### 51 장: 셋길 초원;

두 순례자(소망과 크리스찬)는 푸른 초장을 떠나 험한 길을 계속 가면서 보다 좋은 길이 나오기를 소망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쉬운 방법들이 항상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편한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은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들의 기준과 상상에 의해서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과 같다. 두 순례자는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 스스로 지혜롭게, 보기에 편한 셋길 초원을 선택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에 따라 생명의 길에서 떠나 위험한 길을 선택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의 길에서 쉬운길을 찾으려는 욕망과 자신의 인간적 방법으로 어려움을 면하려는 것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려는 것을 부정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자기 부정의 의무이다.



고린도전서(2:9-10) :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목표: 하나님과 연합된 선택된 자들에게는 세상과 영광, 행복과 즐거움이 아무 쓸모 없음을 보이는 것이었다.

52 장: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

크리스찬과 소망은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피난처(모든 영적 활동이 중단된 상태)를 찾았고, 피곤하여 절망거인의 땅에서 잠에 떨어져, 절망거인에게 남의 땅 침범죄로 잡혀 지하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의심과 절망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평안을 발견하기 전까지 심령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상태를 의미한다. 의심은 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의심속에 가두어서 빠져 나올 수 없도록 만들며, 절망은 거인과 같아서 영혼을 꼭 붙잡고 놓아 주지 않는다. 즉 절망은 소망을 소멸하며, 소심은 하나님의 자비를 불신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소망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사용하게 하셨다. 두순례자는 기도중 “약속의 열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회복된 것을 의미)를 기억하게 됨으로, 약속의 열쇠로 주일날 의심의 성을 탈출할 수 있었다. 열쇠로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실행하는 것을 나타내며, 의심의 성의 탈출은 다시 순례의 길로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 주일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혼을 강력하게 만드는 날이다. 그러므로 순례의 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하며, 절망가운데 인내하고 견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

53 장: 기쁨의 산과 목자들;

두순례자는 “기쁨의 산” 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도착하였다. 기쁨의 산은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신 후 위로하시는 은혜를 나타 낸다.

두순례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죄의 더러움으로 부터 영혼을 깨끗이 씻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의 은덕들을 영혼에 적용하여 평안과 소망을 얻는 것을 나타낸다.

순례의 길에서 수많은 유혹과 핍박, 고난, 오류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 물론 믿음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없으며 진정한 은혜가 결여된 자들이다. 그래서 거짓 고백자들이나 위선자들은 어느 정도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의 산에까지 이르게 되는 데, 그리스도의 보존의 은혜와 고난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명의 목자들은 지식, 경험, 경계, 진실이었으며, 복음사역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영적 자질을 뜻하며, 양떼인 성도들에게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갖고,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 주고, 반드시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하며, 성령께서 영혼을 거둬나게 하실 때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과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중요.

경험;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의 상태를 감독하고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경고하여야 한다. 잘 못된 말로 속이는 아첨쟁이를 주의하는 것이 중요.

경계; 사단의 속이는 것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한다. 고난받고 있는 영혼에게는 위로를 주고 낙망하고 있는 영혼에게는 용기를 주어야 한다. 마법의 땅에서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하는 것이 중요.

진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하며,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되 더러운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

오류; 복음의 진리로 부터 벗어난 오류를,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해석의 차이라고 하면서 그 위험성을 무시한 채 받아드리고 있다. 그러나 아무 해를 주지 않을 것과 같은 조그만 오류라도 결국은 생활가운데 혹은 고백속에서도 살아 계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즐거움에 몰입하게 만든다. 물론 구원에 있어 버림받은 자들은 오류를 매우 좋아 하는 특징이 있다.

지옥으로 빠지는 셋길; 이 길을 택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이다. 위선자들은 순례자들 처럼 행세하며 이곳까지 왔으나 마침내는 자신들의 정욕으로 인하여 셋길을 택하고 지옥으로 빠진다. 이 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로서, 도덕주의자와 예배의 의식주의자들이 속한다. 외적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지라도 속에는 거둬남의 은혜가 없고 이기적 본성과 목적으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셋길로 들어 섰다. 위선자에 대한 가오침은 진정한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자기 점검의 수단으로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여서 항상 은혜에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 54 장: 무지(1);

무지는 기독교의 외적인 형식을 준수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다. 그에게 생명이 이르는 지식, 즉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자들이다.  
거듭남이 없는 외적인 개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1. 무지는 인생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죄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는 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 혹은 조상들이 하던 방식을 따라 구원의 지식이 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외형적인 신앙 행위를 모두 따라한다.(모태 신앙도 포함)
2. 무지는 자기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과 사람들로 부터 도덕적 평판을 얻기 위해 부패된 심령으로 부터 나온 신앙고백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도덕의 법칙으로 유지되는 삶을 살았다.
3. 종교적 형식에만 치중하여 기도에는 반드시 겸손이 동반되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하는 데, 무지에게는 자신의 자랑거리와 의를 내세우는 근거가 되었으며 십일조와 구제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되었다.

#### 55 장: 배신자;

배교의 상태로 있는 자를 말한다. 배교는 신앙고백을 통하여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신을 기독교에 두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신앙을 내 버린 자다. 배신자는 과거에 교회에 다녔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대해서 최소한 지식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무신론적 견해들을 수용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정욕을 좇구하는 삶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에 모든 정열을 쏟아 부었다. 배교자는 믿음에 대한 고백은 하였지만,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했던 자들이다. 배교의 교리는 진실한 성도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 56 장: 적은 믿음;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발생되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믿음은 사랑, 겸손, 인내를 구성하면서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이는 약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이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동일한 한 사람이 시기에 따라서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다. 적은 믿음은 양에 있어서 적을 뿐 믿음이다. 금덩어리가 적다고 해서 금이 아닐 수 없는 것과 같다. 성도의 영적인 삶과 행복의 정도에 있어서 미약하다면 적은 믿음이고, 힘이 있다면 강한 믿음이다. 그러나 믿음의 정도 차이에 관계없이 믿음은 구원의 수단(천국입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적은 믿음도 구원의 믿음이다. 믿음은 성도의 성화의 기본이다.

#### 57 장: 아첨쟁이;

두 순례자는 두 개의 길을 만났다. 하나의 길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길로서 행복의 길이며, 다른 하나의 길은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하는 길로서, 자기만족과 스스로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그런데 두 길 모두 외형적으로는 곧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들은 기쁨의 산에서 떠나올 때 목자 중 한 사람이 준 길 안내도를 꺼내보고 길을 선택하는 것을 잊었다.

거짓교사;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로서, 외적인 경건과 놀라운 언어구사 능력은 사람들을 믿게 만든다. 아침으로 인하여 교만과 자신을 속이는 것에 빠져 아침쟁이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마음을 천국으로 향하게 하지만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천국을 완전히 등지고 가게 한다.

성령의 사역; 1. 진리를 밝혀 깨닫게 하시는 사역. 2. 의심과 두려움으로 부터 건져내어 영적 자유함을 회복하시는 사역. 3. 영혼에게 힘을 주셔서 진리를 붙잡게 하시는 사역. 4. 죄를 책망하시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 5. 성도로 하여금 용서와 회복을 위한 단계로 더욱 성도를 겸손하게 만들고, 의무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교정 효과를 주는 치리자의 사역.

#### 58 장: 무신론자;

무신론자는 종교적 신념이 없는 자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교적 신념을 조롱하는 자다. 무신론자에는 두 부류가 있다. 첫번째는 종교적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교제를 하지 않았으며 성경을 전혀 읽어 보지 않은 자다. 이러한 종류의 무신론자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같이 말하면서 성경을 비웃는다. 경험이 많지 않고 아직 연약한 성도가 이러한 무신론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 영혼에 손상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첫 번째 보다 더 위험한 자인데, 한 때 신앙고백도 하였으며 상당한 기간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도 하였다. 그리고 순례의 길을 상당히 멀리 나아갔으며 열심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으며,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도 없었다. 더욱이 삶 속에서 말씀의 체험이 없었다. 그러다가 종교적인 봉사를 피곤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된다. 말씀의 빛이 비출때마다 음밀히 짓고 있는 죄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불편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 하나님과 구세주와 심판은 없다고 한다. 한 편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로 부터 거리를 두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비난한다.

59 장: 마법의 땅;

마법의 땅은 순례자로 잠에 빠지게 하여서 위험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곳이다. 즉 영적 게으름에 빠지고 영적 나태함과 무력증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졸음이 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경건의 활동들이 서서히 중단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잠에 빠진다는 것은 모든 경건의 의무들이 중단되는 것을 뜻한다.

죄악의 목록; 세상의 부귀(죄악으로 몰아 가는 으뜸죄), 헛된 마음 가운데 나오는 불경한 맹세(떠들고 흥청 거리는 죄), 거짓말의 죄, 주일을 범하는 죄 - 이러한 죄들은 일상 가운데 짓는 죄들로서 위험한 것들이다.

회심의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것과 죄 때문에 갈등하면서 괴로워 한다. 죄 의식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죄를 고백하고 진리를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죄의 책망으로 인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죄를 고치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지만 실패하여 인간 스스로가 어떤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게 되고 심령은 낮아 진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수많은 기도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밝히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 가신 것을 체험한다. 진정한 회심의 증거인 그리스도의 귀중함과 구원이 큰 구원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며, 거룩한 생활에 대한 열망이 일어 나고, 주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크게 일어 난다.

60 장: 무지(2)-계속;

무지는 애매모호하고 비성경적인 지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잘 믿는 다고 생각하는 자다.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좋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므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해야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지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협력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뒤틀어 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을 믿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 기만적인 신학에 빠져 있으면 자기 멋대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기준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단지 자신의 삶에 조력자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야 하고, 자신의 봉사와 행위를 근거로 해서 본인 자신이 잘 믿는 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러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이유는 성령의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영혼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구주로 모시게 된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는 역사는 경건한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데, 회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거듭남 이후에 성화의 원리로 작용한다. 거듭남 이후에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한다.

### 61 장: 일시적 믿음;

무지는 잘못된 지식과 피상적인 지식으로 교회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자인 반면에 일시적 무지와 달리 상당한 지식과 죄의 질책과 같은 체험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고 죄 된 삶으로 돌아가는 자다. 둘 다 천성에 이르지 못한다.

일시의 특징은 갑자기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유는 첫째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그의 양심은 각성되었으나 그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둘째는 사람들을 두려워 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친구들로 부터 일어날 반대와 비난을 두려워 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 갔다. 셋째는 육신적 수치심 때문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적고, 가난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포기하고 만다.

넷째는 쉬운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의 질책을 무겁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 순례의 여행을 마치고 천국으로

### 62 장: 빨라 땅;

이 곳은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성도들의 휴식을 위하여 마련된 곳으로 여행의 피곤함을 회복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여 죽음을 준비하는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 “빨라” 라는 단어는 원래 이사야서 62장 4절 에서 빌려온 것으로 ‘결혼한 여자’ 라는 뜻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와 같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하고 의지함으로 얻는 즐거움을 강조 하는 것이다. 순례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온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전 잠시 동안 누리는 은혜를 의미한다. 천성을 구체적으로 뚜렷이 바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심과 실망이 있을 수 없었다. 오히려 더욱 확신한다. 천사들은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위로하고, 그 영혼을 영원한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빨라 땅을 자주 다녔다. 죽음에 있어서 두려움과 육체적 고통은 어려움이므로 주께서 성도의 죽음에 앞서 높은 수준의 영적 체험을 주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셨다.

### 63 장: 죽음의 강;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곤 모두 천성의 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한다. 진정한 성도라 할지라도 죽음을 통과할 때 번뇌에 빠질 수 있으며, 두 순례자는 강을 건너는 것에 있어서 믿음에 따라 강물이 깊어질 수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죽음의 시간에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통하시기를 원하신다. 죽음의 시간에 주를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건널 수 있도록 도와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엄숙한 시간이 닥아 왔다. 두 순례자는 강으로 들어 갔다. 크리스찬은 강물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다. 소망은 자신의 바닥이 느껴진다고 말하면서 크리스찬에게 용기를 주었다. 죽어 가는 크리스찬에게 약속의 말씀과 복음의 위로들을 들려 주는 것은, 그로 하여금 평안함과 기쁨가운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방법이다. 소망은 크리스찬이 불안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의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크리스찬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리고 믿음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강을 다 건너면서 육체의 걸 옷을 벗게 되었다.

#### 64 장: 천국 입성;

천성은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천사와 의인들의 영만 있는 곳이다. 그리고 천성에서는 평안을 누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먼저 이 곳에 이른 성도들을 만나게 된다.

두순례자는 두 빛나는 안내자를 만나 천성으로 인도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찬치에 청함을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천성문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로, 구속받은 자들의 장래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고귀하고 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은 구속자의 눈에 매우 아름다운 자들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천성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고 순종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며, 이런 자들은 구원의 믿음의 산물인 거룩을 소유한 자들이다. 셋째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구원의 은혜의 증거가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즐겁게 지키는 자들이다. 넷째로, 자신들이 하늘의 천성의 유업을 받을 자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모든 성도의 마음에 있는 구원의 은혜의 증거가 천국입성의 증명서다.

두 순례자는 천성문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변화되었고, 금과 같이 빛나는 옷을 입게 되었다. 이것은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로 부터 시작된 변화가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금과 면류관을 받았는데,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면류관은 명예의 표식이다.

#### 65 장: 헛된 소망;

무지라는 자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부정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던 자다. 구원의 은혜의 과정에 대해서 무지하였던 그는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 종교 생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신이 편리한 대로 생활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행위들을 근거로 하여 상당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반듯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그가 죽음을 맞게 되었다. 무지는 “헛된 소망” 이 제공한 배를 타고 손쉽게 죽음의 강을 건넜는 데, 자신만만한 스스로의 헛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것을 의미한다. 무지는 자신의 종교적 행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 주실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에게 근거를 둔 잘못된 소망을 가진 자는 심판 주 앞에 나올 때도 이렇게 뻔뻔스러운 담대함이 있다. 잘못된 자기 확신과 소망으로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지에게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좁은 문을 통해 얻는 빛-구원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두 천사들에 의해 결박되어 지옥으로 들어 가는 문으로 던짐을 당하였다. 무지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의(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는 다는 것) 를 거부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 멋대로 종교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결론 : 행복한 노후의 삶의 목표는 이웃에게 베풀고, 하늘을 준비하는 삶이다.

세상은 살아 갈수록 복잡해 지고, 인생은 살아 갈수록 간단해 진다. 그래서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떠날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외수)

## 구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는 죽음앞에 놓인 두 갈래길 중 한길,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만 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라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마치 자동차 보험처럼 영혼의 보험을 들어 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보험입니다.

누구나 육체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이 육체를 벗고, 우리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며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비밀은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 살찌 알수 없다는 것이고, 그 날은 순서도 기약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은 천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죄가 있으면 갈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먼지가 가득히 쌓여있고, 지금도 계속 언지가 내리고 있는 조그만한 방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 부패되고 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혹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림을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당신을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

손님을 맞이 하기 위해 집안 청소를 하듯이, 먼저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당신의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가는 날까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